



시청률·광고판매 저조 ... '아들아들' 등 성차별 발언 논란

지상파 리우올림픽 중계 '흐림'

4년만의 축제인데 축제 분위기가 나질 않는다.

시차 때문에 높은 시청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은 예상했던 바지만 지상파 방송 3사의 시청률을 다 더해봐도 한 자릿수에 머물러 방송사들은 울상이다.

시청률이 낮으니 광고 판매도 되지 않아 작가가 예상되는 데다 앞선 데 달린 격으로 방송사 중계진의 성차별 발언까지 논란이 됐다.

◇ 낮은 시청률에 광고 판매도 저조...런던 올림픽 대비 30% = 한국과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는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리우 올림픽에서는 대부분 중요 경기가 밤 늦은 시간부터 이른 새벽에 열린다. 각 방송사의 올림픽 관련 방송은 주로 밤 11시부터 시작돼 다음날 오전까지 이어진다.

늦은 시간대 탓에 메달이 걸린 경기의 시청률마저 한 자릿수에 머물 정도로 시청률 부진을 겪고 있다.

7일 오전 5시경 진행된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의 시청률은 지상파 3사를 모두 합쳐 8.7%였다.

방송사별로는 KBS 1TV 2.6%, MBC TV 3.6%, SBS TV 2.5%.

KBS 2TV가 오전 6시50분께 내보낸 이 경기의 재방송이 7.5%의 시청률을 기록한 것을 보면 경기 시간대가 시청률 부진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광고업계에 따르면 9일 현재까지 지상파 방송 3사의 리우 올림픽 중계방송 광고 판매량은 각사별로 60억원 가량. 4년 전 2012 런던 올림픽 당시 광고 판매액의 30%에 불과하다.

광고 판매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올림픽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는 상황이라 극적인 반전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추세라면 광고 판매액이 중계권료에도 못 미쳐 방송사들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사상 최악의 광고 판매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 "보기엔 아들아들..." 성차별 논란까지 가세 = 이번 올림픽에선 방송사 중계진들의 성차별적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스물여덟이라면 여자 나이론 많은 나이" (SBS·유도), "미인 대회에 출전한 것처럼..." (중략) 서양의 양귀비 규수의 조건을 갖춘 것 같은 선수네요" (KBS·펜싱), "남자 선수도 아니고 여자 선수가 이렇게 한다는 건 대단합니다" (MBC·역도) 등 방송사와 중목을 가

리지 않았다.

트위터 사용자 '주단'(JOO_D4N)은 지난 7일 '2016 리우 올림픽 중계 성차별 발언 아카이빙'을 개설하고 누리꾼들에게 직접 들은 발언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8일 오후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이 파일의 내용이 지워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아카이브에 따르면 유도 여자 48kg급 경기 중계에서 SBS의 김정일 캐스터는 몽골의 몬크흐바트 우란체제트 선수에 대해 "보기에 아들아들한테 상당히 경기를 역세게 치르는 선수"라고 표현해 논란이 됐다.

여성혐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런 발언은 온라인상에서 많은 지탄을 받았다.

트위터 네티임 '세스타'는 "역시 스포츠는 남자들 권위의 상징인가. 성차별적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남발되네. 작작 좀 하지"라며 불쾌해 했다.

'커피안콜고기도'도 "지금 올림픽 중계는 '금메달 타령'과 '성차별'로 도배돼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이 나라의 인식 수준은 이것 밖에 안 되는 건가요?"라고 꼬집었다.

연습뉴스

남진·윤수현 뭉쳤다

'사치기 사치기' 발표

"트로트가 위기? 다시 봄 일으킬 것"



남진

윤수현

'트로트의 전설' 남진이 신세계 트로트 가수 윤수현과 듀엣곡 '사치기 사치기'를 발표했다고 한국음반산업협회가 9일 밝혔다.

지난 2009년 장윤정과 듀엣곡 '망신이 좋아'를 발표해 사랑받은 남진은 7년 만에 후배와의 콜라보레이션(협업)을 통해 전통가요의 봄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사치기 사치기'는 흥겨운 전통가요의 작법에 충실하면서도 젊은 세대가 공감할 '후크송' 계열의 반복적인 패턴으로 구성됐다.

'월화수목금토일, 한주 내내 사랑하며 살자'는 가사

가 친근하다.

1965년 데뷔해 50여 년간 활동한 남진은 이 곡을 발표하면서 어느 때보다 트로트 시장이 '위기'라고 진단했다는 게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남진 씨는 지상파 방송의 외연으로 새로운 전통가요를 집합 프로그램을 사실상 찾기 어렵고 그만큼 시장이 위축돼 제작 의욕도 꺾였다고 본다"며 "이 노래가 전통가요 중흥을 위한 터닝 포인트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진은 이 곡의 홍보를 위해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공연료 축소 신고' 이미지, 탈세 의혹

'엘레지의 여왕' 이미지(사진)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미지의 공연기획사인 하늘소리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미지 씨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도록 해 떠안게 된 세금으로 수년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 3일 공연기획사가 있는 대구지방국세청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갈등은 이미지가 지방 공연의 권리 일부를 다른 기획사에 맡기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늘소리 관계자는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면서 올해도 이미지 씨의 '가족음악회'로 적자를 봤다"며 "늘 하던 대로 다른 지방 공연으로 매우려 했는데 이미지 씨가 일부 지역의 공연을 다른 기획사에 맡기면서 이번에 관계 정리를 하고자 했다. 내용증명을 두 번 보냈지만 별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지 씨가 2014년에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에서 공연 수익금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발혀져 7억5000만 원을 추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미지의 아들은 통화에서 "어머니의 소속사 대표가 작년에 별세했는데 어머니는 그 대표와 가수, 매니저 관계였지 공연기획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2014년에도 우리가 누락된 세금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자진 신고해 지연 납세를 한 것이 추징당한 것이 아니다. 오늘 밤 어머니가 해외에서 돌아와 내일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여기는 리우 <탁구, 비치발리볼>	5:00 2016 리우올림픽 유도.펜싱	00 리우 2016 <유도, 사격, 펜싱>
7	50 여름특선 앙코르 인간극장(재)		00 MBC 뉴스투데이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00 리우 2016 모닝와이드 30 KBC 모닝와이드 5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8	25 아침마당	00 리우올림픽 하이라이트	30 생방송 오늘 아침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기는 리우 <수영>	30 MBC 생활 뉴스 45 2016 리우올림픽 <수영>	10 리우 2016 <탁구 남단식 8강>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재)		00 TV속의 TV	00 TV블로그 쏘지락 05 위대한 유산 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12	00 KBS 뉴스 12	00 KBS 특별기획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재)	00 MBC 정오뉴스 20 2016 리우올림픽 하이라이트 <땀 속 꿈 리우>(재)	00 SBS 12뉴스 20 리우 2016 하이라이트
1	00 2016 리우 올림픽 중계식			00 열린 TV 시청자세상
2		00 KBS 뉴스타임 10 이웃집 찰스(재)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키 이하 동물탐험대 55 모두모두 쇼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감성애니 하루(재) 05 올림픽 특선 걸어서 세계 속으로(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고양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고롤라즈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올림픽 투데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한 토코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여름특집 KBS 대기화 <디렉터스컷>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쏘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가족>	30 글로벌24 55 신일 리얼 도전기 루키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리우 2016 특집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리우 2016 <양궁, 펜싱, 유도, 탁구, 사격>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10	00 2016 리우 올림픽 <유도, 양궁>	00 KBS 특별기획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00 수목미니시리즈 <W>	
11	00 KBS 뉴스라인 50 2016 리우 올림픽 <조정 남녀 쿼드러플스킬 결승>	10 여기는 리우 <펜싱, 사격, 양궁, 유도>	10 2016 리우올림픽 <펜싱, 유도, 사격>	
12	30 2016 리우 올림픽 <하키(여) 조예선>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10:30 한국기행	15:20 꼬마철학자 추고
05:30 건강한 아침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35 호기심나라 오키도
05:4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참치회 달밤과 콩나물 볶국>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50 바오발성의 파오파오
06:10 세계의 눈	12:00 EBS 정오 뉴스	16:00 출동! 슈퍼왕(재)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07:30 주사위 오정 큐비슈	12:40 지식채널 e	16:45 덩동덩 유치원 1~3(재)
07:45 뽕뽕뽕 뽕뽕로	12:45 EBS 초대석	17:30 꼬마버스 타요(재)
08:00 덩동덩 유치원 1~3	13:40 사이틴3 왔다 사춘기	17:45 뽕뽕뽕 뽕뽕로(재)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3:50 이암 스페이스 정글	18:00 생방송 특집! 보니하니1~4
09:00 출동! 슈퍼왕	14:00 짝과 팡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30 미앤마이로봇	19:30 EBS 뉴스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부부 대화, 아이가 듣고 있다>	15:00 모피와 친구들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5:10 세계사 시간여행	20:40 우리 오늘 <나는 교배견입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0일(음 7월 8일 甲子)	
子	48년생 조용히 추진함이 안정성에 일조할 것이다. 60년생 본격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72년생 실제보다 더 부풀려진 것임을 참고하라. 84년생 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오는 것을 막으려 말라. 행운의 숫자 : 20, 57	午	42년생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 지금 내색할 필요는 없다. 54년생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가능해 볼 필요가 있다. 66년생 지극히 단연하고 자연스럽게 펼쳐질 것이다. 78년생 첫 술에 배부르랴? 행운의 숫자 : 61, 43
丑	49년생 행운을 이끄는 길성이 비추고 있다. 61년생 주어진 기회를 활용에 보는 것도 괜찮다. 73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85년생 대마루판이 될 것이니 최선을 다하여 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01, 88	未	43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산적이다. 55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 67년생 혁신적인 방안을 도모해야 할 때다. 79년생 준비하다가 하루해를 다 보내게 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98, 40
寅	50년생 의욕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겠다. 62년생 취약한 곳이 보이니 속히 보완하자. 74년생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아야만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86년생 탄력이 붙었을 때를 놓치지 말고 집중적으로 추진하자. 행운의 숫자 : 63, 83	申	44년생 직접 처리했을 때 우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56년생 일관된다면 대원성취 할 수 있는 운로이니라. 68년생 무리하게 끌어올리려 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0년생 소모적이며 파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38, 97
卯	51년생 분똥을 제대로 파악해야 대국의 조성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 63년생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게 된다. 75년생 이유 불문하고 함께해야 할 판도에 놓여 있느니라. 87년생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69, 15	酉	45년생 시세와 국량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야 할 때가 되었느니라. 57년생 소임은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느니라. 69년생 실제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수긍하게 될 것이다. 81년생 세분화할수록 이롭다. 행운의 숫자 : 72, 59
辰	40년생 중요한 경계에 이르렀다. 52년생 폭 넓은 안목이 길정의 형세로 이끌 것이다. 64년생 부단한 정진 속에서 해안을 따오를 것이다. 76년생 충분한 분석과 고찰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88년생 대중잡아서 되는 일이 아니다. 행운의 숫자 : 09, 73	戌	46년생 시작적으로 쉽게 현혹될 수도 있느니라. 58년생 썩 좋은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다. 70년생 결모습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세밀하게 캐보아야 할 일이다. 82년생 정답한다면 자승자복하는 꼴이 된다. 행운의 숫자 : 19, 33
巳	41년생 지금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의 차이를 슬 수밖에 없다. 53년생 무리하지 않음이 옳다. 65년생 관계나 체면을 의식한다면 결말이 된다. 77년생 상대하기 힘들 것이다. 89년생 시간적 여유가 꼭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45, 62	亥	47년생 경사스런 일로 인해서 축제 분위기다. 59년생 욕심대로 될 일은 아니니 절대로 집착할 필요는 없다. 71년생 기존의 형태가 끝났을 도모해야 할 때다. 83년생 기쁨이 가져올 드노 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4, 9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센터" ☎010-9790-8237